

LA 동포간담회

한국인 역량에 자부심

반갑습니다. 정말 제 느낌이 따뜻합니다. 화기에애하다는 말을 더러 쓰는데 실감이 안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정말 실감납니다. 화기에애합니다. 어제 LA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참 아름답다 싶었습니다. 우리 동포들이 많이 사는 곳이라 더 아름다웠으면 한다고 생각했는데, 과연 아름다웠습니다. 여러 도시를 다녔고 서울만큼 아름다운 데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LA에 와보니 산이 보이고 언덕도 좀 있고 해서 그렇게 삭막한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서울 맛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LA에서 많이 사나 생각 했습니다. 어제 저녁 LA 시장이 초청해 저녁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느낌은 그냥 우쭐했습니다. 대접 참 잘 받았습니다. 대접을 잘 받은 이유가 누구 덕일까요. 여러분 덕택입니다.

참 기쁘고 한편으로는 우쭐해지기도 하고 한편으로 어깨가 참 무겁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장께서 특별히 우리 동포 여러분 걱정을 많이 하더군요. 각별히 감사하다는 인사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 성공하신 많은 분들을 초청했고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을 보고 촌사람 얘기로 한국사람 LA에 와서 대접 잘 받는구나, 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

산 선생 호를 딴 인터체인지, 우체국 얘기도 했습니다. 물론 어제 낮에는 남가주대 총장과 안창호 선생 자녀들, 후손들을 만났습니다. 그런저런 것을 우리끼리 잔치인줄 알았는데 시장을 만나보니 LA에서 한국 사람들이 확실히 자리 잡았다는 증거였습니다. LA 시장이 각별히 LA치안 문제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시장이 되고나서 시민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고 있다고 하고, 아울러 동포들이 사는 지역의 치안이 좋지 않아 걱정이라는 얘기와 함께 반드시 치안을 안정시키겠다고 해서 경찰국 부국장도 한국인이 임명돼 있고.... (일부 박수 나오자) 박수 한번 칩시다.

뉴욕서 상당히 성공을 거둔 분을 영입해 안정시키겠다 하던데, 동포 안심시키겠다는 공약이구나 싶어 무척 고마웠습니다. 여러분께도 좋은 소식이라 생각돼 말씀드립니다. 이런 여러 일들이 그 동안 황량한 이국땅에 와서 눈물 반, 피땀 흘려 쌓아 올린 업적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에 영화, 애니메이션, 연기활동을 하는 젊은 동포들을 함께 만났습니다. 그 영역이 LA의 주된 산업 영역이기도 하고 한국서도 각광받는 분야라 LA에서는 어떻게 활동하나 싶었는데, 놀라울 만큼 훌륭히 활동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만큼 기반을 갖췄다 생각하니 한국하고 함께 하면 뭔가 장사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도 영상산업, 인터넷이 특히 발달해 콘텐츠에 집중하는데 아직 세계시장을 넘겨보기는 역부족이나 LA에 와보니 한국 영상산업의 시장을 열어내 줄 만한 인재들이 이미 자리 잡고 있다는 것 확인하고 또 한 번 희망도 보이고 한국 사람의 역량에 대해 자부심이 생깁니다. 본국 정부로서도 더불어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겠다는 결심을 하고 돌아갑니다.

사실 어찌 보면 한국이 거리상 멀리 있어 뵙고 회포도 푸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LA 동포들은 국내에 있는 것보다 더 자주 만나는 것처럼 가깝게 느껴집니다. 특히 매체의 90% 한국어로 발행되고 있어 고국 소식을 전하

려니 썩스럽습니다. 특별히 전할 게 없습니다. 다만 매체를 운영하는 언론인들이 전할 고국소식이 있고 제가 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약간 다를지 모르겠지만. 전통적으로 언론은 과거 전제주의시대에서 민주주의 과정으로 오면서 시민사회를 대변해 권력과 싸웠던 세력입니다. 언제나 정치권력은 남용될 수 있고 개인 인권을 침해할 수 있어 권력 감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비판적 관점에서 문제제기 합니다. 그 비판 다 받아들이면서, 어떤 것은 잘 알지도 못하지만 대개의 경우 다 참고합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불행하게도 언론 얘기는 매일 전달되나 제 얘기는 매일 전달 안 되는 게 유감입니다.

경제 반드시 살아납니다

저를 빛내고 변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걱정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걱정이 경제 아닙니까. 그러나 걱정 마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십수 년 저도 경제를 걱정하며 살피왔습니다. 각 정권들이 하는 경제정책을 그때도 분석, 비판해왔고 대통령 되고 나서 옛날 정책도 봤습니다. 결국 무리하게 경제를 운용하면, 빨리 국민의 박수를 받기 위해 무리하면 2,3년 안에 심각한 파탄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환자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주사, 각성제 놓는 것은 못하게 했습니다. 민심에 민감한 것은 정치인입니다. 그러나 각료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원칙대로 합니다. 정석대로 합니다. 바둑에 정석이 있듯 경제에도 정석이 있습니다.

세계 충분한 시간 주어진다면, 경제정책을 놓고 토론한다면 10시간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잘 나서가 아니고 그래도 이런 저런 다른 관점으로 한국경제를 평가하는데 나름대로 내로라하는 사람들의 조언을 받고 토론하게 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또 중간서 평가하는 사람들, 이러한 의견을 다 종합해서 원칙대로 갑니다. 경제는 반드시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경제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제대로 알고 순응하고 따라가면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엔 국민역량이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여러 번 정책이 실패했으나 경제는 위기를 다 넘겨왔습니다. 국민역량입니다, 저력입니다. 때로는 정책 실수가 있어도 극복해 준 게 국민역량입니다. 이제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 실수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실수 없이 끌고 가겠습니다.

우리 경제, 성장의 함정이나 분배의 함정이나 구분해 얘기하는데 동전의 양면 같아 따로 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흔히 좌파라고 하는 아르헨티나의 메넴 대통령이 3000%의 인플레이션을 잡을 때 극단적인 우파 정책을 썼습니다. 멕시코 폭스 대통령은 우파로 알려져 있으나 임명되면서 좌파 정책을 수용했습니다. 그렇게 안하면 실패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좌파나 우파나 한쪽으로 재단하는 것은 낡은 생각입니다. 저는 우파 정책도 좌파 정책도 다 쓸 것입니다.

경제 양극화가 문제

우리 고민은 양극화의 문제입니다. 10년간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의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졌습니다. 여러 원인이 있으나 핵심적인 것은 기술격차입니다. 제가 기술혁신을 내세웠는데 이를 줄이지 않으면 중소기업은 영원히 다시 일어설 수 없습니다. 기술격차, 그 차이를 줄이려 합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국민을 중소기업이 고용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노동자도 대기업 노동자는 임금이 높은 수준으로 가 있고, 작은 기업 노동자는 임금이 아주 낮습니다. 소득 그래프로 그리면 가운데 중간치가 낮고 양쪽은 높습니다. 장고 반쪽을 자른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는 우리 경제의 생산과 소비를 완전히 분리시킬 수 있는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소비가 부족한 것은 신용불량자 등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런 소득 양극화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극복해야 합니다. 분배로 극복하면 자유시장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견해가 있어 교육, 연수, 훈련, 노동기회 제공 등을 통해 양극화를 극복하려 합니다. 제

가 지어낸 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앞으로 지속성장을 하기 위해 고쳐야 할 문제는 지금 드러나 있는 문제, 즉 성장률 4, 5%냐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생산과 소비의 괴리입니다. 한국 경제를 위기라 말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에 대해서는 다시 합의해야 합니다. 위기라 말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경제력이 큰 대기업쪽 사람입니다. 역사상 가장 재무구조가 좋고 가장 많은 이익을 내고 지금도 호황을 누리고 투자여력도 많은 그분들이 위기를 제일 많이 말하는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위기요인은 성장의 함정에 있는 게 아니라 양극화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민주노총이 가장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가장 안정된 노동자들이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 지 실제 심각한 노동자의 직업 안정성은 전혀 다른 데 있습니다. 그들만의 노동 운동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얘기되는데 대해 제가 느끼는 고민과 그분들 고민이 다른 것 한두 개를 짚어본 것입니다.

이 성장과정에서 속도를 늦추지 않으면서 양극화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캐나다 멀로니 수상 시절에 부가세를 만들어 그 다음 총선에서 참패했습니다. 그 결과 크레티앵 자유당 정부가 정권을 잡았는데 보수당 정권 때 만든 부가가치세 때문에 경제가 호황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욕심으론 임기 중 빠른 경제회복 곡선을 그리려하지만 본격적인 성과는 다음 정권에 나타나리라는 목표를 갖고 하려 합니다. 메넴 대통령이 마지막에 성공하지 못한 것은 빠른 성장 가운데 양극화에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양극화를 반드시 극복하려 합니다. 아무리 빠른 속도로 회복 시켜도 내부 양극화를 극복 못하면 다음 정권 때 심각한 애로를 겪게 돼 있습니다. 이 문제, 성장에 장애 되는 문제를 다음 정권에 절대 넘기지 않으려 합니다.

한미관계 원만

북핵 문제, 걱정 많이 하죠. 어쨌든 지난 1년반 그럭저럭 관리해왔습니다. 부시 대통령 2기가 됐습니다. 부시 대통령도 이상 더 미루기 어려운 과제라 생각합니다. 부시 대통령과 며칠 뒤 만나겠지만 그때 잘 상의해 되도록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제가 '스페인이 왜 이라크에 파병했는지' 물었습니다. 반기문 장관이 보좌관 할 때였는데. '미국에 스페인계 국민이 아주 많다'고 얘기하더군요. '폴란드도 그런가' 하고 물으니 '네, 미국에 폴리쉬 많다'고 하면서 넌즈시 쳐다보는 눈치가 '따라서 우리도 ...'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한미관계 걱정 많습니다. 그러나 잘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한미군 재배치, 이런저런 얘기가 많습니다. 한국이 이제 이만큼 왔다고 얘기하려면 가장 위험한 최전방은 한국 군대로 지키게 해야 합니다. 아무리 우방이고 동맹이지만 남의 나라 군대를 친구라 해서 앞에 세워 놓고, 임계철선이라 이름 붙여 지식인들이 절대 제거하면 안된다고 하는 것은 자주국가의 위상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절대 국민들에게 이런 인식을 심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차로 한국군이 방어하고 힘이 모자라는 만큼만 도와달라는 게 도리라 생각합니다. 감축의 문제에 관해 사실은 아주 일찍부터 논의가 있었으나 양국이 오랫동안 여러 민감한 문제 있으니 '1년 늦춰 대화하자' 해서 금년부터 대화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략 개념의 문제라는 것을 그대로 믿어 주십시오. 사실은 사실 그대로 믿어야지 끊임없이 의심하면 잡 못 잡니다. 기우는 하지 않고 합리적 걱정만 하면 됩니다. 주한미군 만2천명 감축은 문제 안 됩니다. 미국이 전투력은 훨씬 더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우방의 약속으로 믿으면 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10년 정도 내다보며 완전한 자주국방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전시 작전통제권을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자주국방을 강화해 갈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하자는 것은 이상론입니다. 그러나 계속 미국에 의존하자는 것은 우리 민족의 미래를 생각 않는 것입니다. 한 10년 걸려 빠르면 7, 8년 걸려 한국이 주된 방위력을 갖고 미국이 도와주는 수준의 국방체계, 협력적 자주국방체계라 하는데, 이렇게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용산기지 이전은 여러분도 찬성할 것입니다. 돈을 누가 내느냐를 갖고 이의제기가 있기도 한데, 한국의 필요에 의해 수도에서 이전하자 합의했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승계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 간 약속이고. 하나는 한국의 수도에서 이제 수도 한복판에, 그것도 청나라 군대가 있던 자리에 아무리 우방이라지만 도시 한가운데 있는 문제는 풀어야 합니다. 돈 문제 가지고 옥신각신 싸워서 안 됩니다. 돈이 적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선 안 됩니다. 이러한 전 과정에서 한미관계가 원만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미관계가 나빠져서 여러분들이 걱정합니다. 전혀 그런 걱정 없게 하겠습니다. 아무 걱정 마십시오.

야당, 저도 해 봤지만 그때 보면 정부 하는 게 다 불안하더군요. 때로는 잘못됐으면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된 얘기들이 있기도 하지만 여럿이서 합니다. 여기에 한승주 대사도 와 계시고 다 손발 맞춰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때로 미국 의견에 대해 반대된 것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협상하고 다룰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되는 것은 되고 그렇다고 틀어질 만큼 한미관계 그렇게 각박한 게 아닙니다. 한반도의 전략적 위치가 미국이 속이 좀 쓰려도 쉽게 포기할 만한 곳이 아닙니다. 그런 조그만 입장 차이를 갖고 일희일비하면 국가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연기금 투자로 사회간접자본 확충

신용불량자, 카드채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카드채 문제는 좀 남았지만 거의 극복 다 됐습니다. 신용불량자는 1년 정도 하고 회복기로 돌아설 것이란 희망이 있었는데, 1년10개월 왔습니다. 다행히 지난 8월경부터 신용불량자 문제는 점차 금액으로 감소해가기 시작합니다. 점차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그 고비는 넘어선 것 같습니다. 1년 반 정도 걸린 셈인데, 카드 부분은 몇 가지 처리는 남았으나 그것으로 인해 한국경제가 큰 위기에 봉착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해외에 있는 동안 국회에서 할 일이 몇 개 있습니다. 외환 보유고, 크게 가지고 있는데 운용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안전 때문에 보유고를 많이 가지고 있고 국가에서 이자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용 수익은 조금 낮습니다. 외환보유고는 항상 현금으로 바꿀 수 있게 운영돼 있어 이익률이 좀 낮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수익을 좀 내고 싶은데 아직 국민적 합의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발등의 불처럼 바쁘지는 않습니다. 증권 시장에 외국자본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외국자본이 한꺼번에 다 팔고 나가지 못합니다. 값이 떨어지면 손해 봐야 하지 않나? 그래도 한국에서 아무리 돈이 없어 정말 대책 없고 증권시장이 폭락하면 한국경제가 또 무너지는 게 아니냐 하는데, 유동자금 4백조라는 얘기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 정도는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사업상 또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한 게 4백조 정도 은행에 있는데, 이중 3분의 1이 투기 자금이라 합니다. 그것만 해도 백50조원이 넘는 돈입니다. 그러면 백조 넘게 투자처를 못 찾아 국내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한은서 금리 내렸는데 그러면 일부 해외로 나갈지 모른다 합니다. 좀 나가면 환율에 도움 된다는 등등의 얘기가 있는데, 이만한 자금이 국내에 있습니다. 100조 정도로 연금, 기금이 있습니다.

매년 거두는 금액이 수십조 정도 되죠? 액수 외어 와야 하는데 감박했습니다. (나중에 정책수석이 15조원이라 확인함) 국민연금에 엄청난 돈이 있습니다. 이 돈을 법으로 묶어 놔 제대로 투자 못하게 해 놔습니다. 이 돈이 묶여 있으면 결국 경제법칙에 의하면 수요를 줄이는 것입니다, 빨리 시장에 풀어줘야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해마다 엄청난 돈을 연금으로 걷어서 국내시장에 제대로 풀지 못해 시장이 수축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풀어서 시장에 좀 투자하고 사회간접자본 투자라든지 생산적 투자를 하고 남으면 해외투자도 하자 하는데, 옛날 정부가 낮은 이자로 기금 썼던 적이 있는데 그 때는 정부 이자는 낮고 시중 이자 높았던 때고 지금은 역전돼서 정부 이자가 더 나아 더 이익입니다. 지금은 정부에서 쓰자는 게 아니고 우선 주식투자를 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풀어야 합니다. 풀지 않으면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 질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식 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 자본이 왜 떠나겠습니까. 이 문제 못 푸는 게 답답함의 하나인데, 돌아갈 때까지 국회에서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뉴딜적 경기부양, 투자를 얘기하는데 한국이 지금 소득은 만2천불 이지만 축적이 적습니다. 잘살고 세금 많이 거둔 적이 없어 축적이 적습니다. 도로는 닦였지만 철도가 부족하고 항만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은 그래도 나운데 각 지역에 도서관은 없다고 할 만큼 부족하고 학교 교실, 대학교 기숙사가 엄청 부족합니다. 의료 시설 요양 병상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늘려야 하는 비용 등 국민들의 문화, 건강 인프라가 너무 빈약합니다. 여기에 연기금 투자 좀 해 주면 그 건물을 정부가 임차해 쓰고 월부로 해서 그 건물을 인수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사회간접자본을 빨리 확충해 보려고 합니다.

1. 돈 안 쓰고 묻어 놓으면 위축됩니다. 경제도 살리고 사회간접자본도 축적하고 점차적으로 갚아나가야 하는데, 여기에도 이런저런 오해와 이견

이 있습니다, 세금을 낮추자는데 우리 한국이 사회보장이나 사회간접 자본 축적도가 원체 낮아 국가적 수요를 도저히 할 수 없고. OECD 국가 중 세금 낮은 세 나라중 하나입니다. 감세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감세 얘기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해외동포 병역·투표권 합리적 해결

평소 느끼는 애로를 분위기 좋으니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기 전부터 여러분들이 국내 참정권 문제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또 병역문제가 상당한 애로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법을 운용하는데 한국법 운용이 상당히 불편한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융통성이 참 없다고 느낄 경우 있습니다. 여러 애로를 다 고려해 불편을 다 해소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뒷거래도 있고 해서 불신 있어 공무원들이 감사 까다롭게 하고 하니 몸을 움츠려 융통성 있는 운용이 어려웠습니다. 병역, 회피 목적으로 영주 시민권 갖는 경우는 철저히 막지만 살다 보니 세계로 뻗어 나가자는 국가목표가 있는 이상 자연히 삶을 개척하며 나가서 해외생활에 굳은 사람을 억지로 끌어다 원수진 것처럼 그래선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영위하는 '삶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 명확히 따져 그것이 병역의무 면탈의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는 한 융통성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간 충분히 검토 못했습니다 생각하면서도 차일피일했는데 돌아가 즉시 그 같은 제도 다시 검토해 좋은 소식이 전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혜택, 특해도 드리지 않겠지만 실질에 맞지 않는 불편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권에 관해서는 지금 우리가 상사 주재, 직무상 나와 있는 교민에 대해서도 상사, 지사 주민에게도 제대로 제도 못 갖추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상사, 지사부터 연구하겠습니다. 제도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많아서 임기 초부터 연구하라 했는데, 아직 연구가 안 끝났는지 올라오질 않습니다. 가서 챙겨 보겠습니다.

‘대한민국당’ 으로 뭉치자

걱정 되더라도 이제 한국도 ‘전쟁 민주주의’ 말고 ‘게임 민주주의’를 했으면 합니다. 예전에는 정치 게임서 지면 전쟁에서 진 것처럼 돼서 정치게임이 죽기 아니면 살기 식이었는데, 이제 민선 대통령도 몇 번 지났고 그래서 이제 투표에 관한 한은 미국에도 큰소리 할 만큼 됐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게임을 하기 때문에 정치에서 여야를 게임으로 보고 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게임에서 지면 다시 열심히 체력단련, 패자부활하는 이런 식으로 가야 합니다. 제 또래 윗분들은 아직도 정치를 전쟁 개념으로 봅니다. 그 생각을 씻는데 노력해야 할 만큼 쉽지 않지만 그렇게 생각해주고 게임 결과를 산뜻하게 존중하고 반대쪽에는 정책으로는 치열히 싸워도 인정했으면 합니다. 해외에 있을수록 국내정치에 훨씬 관심이 많습니다. 내부서도 이런저런 갈등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게임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국내에서도 앞으로 정치가 그렇게 되도록, 이긴 쪽이나 진 쪽이나 항상 다음에 기회 있게 정치를 바꿔 가려 합니다. 해외 있으니 이당이든 저당이든 또는 고향 가지고 가르고 하고 하지 말고 극복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대한민국당’으로 뭉쳐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가서 지금은 잘 못하지만 여야 모두 ‘대한민국당’ 안에서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국 정치에도 희망을 가져 주십시오.

■ 맺음말

전체 해당 문제도 있고 부분적 문제도 있고 한데 어느 부분이라도 즉석에서 답변 어려운 것 입니다. 그 문제는 적어서 오늘 것을 살펴보고 남아메리카 외교전략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 안 드려도 보도 통해 나올 것입니다. 과거 민원 창구서 있던 일들은 된다, 안 된다만 있었는데 제도개선해

모든 민원을 고충처리위로 넘어가게 했고, 가능하면 제도를 고치고,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실과 연계해 부처 이견으로 안 풀리는 것은 청와대가 조정위를 만들어 깊이 있게 검토해 제도개선을 해서라도 해소 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혁신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국민을 믿습니다. 다음은 시장 개혁이라는 건데,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를 해야 합니다. 실력 있는 사람이 성공하고 야바위하는 사람이 설 땅 없어진다는 것인데, 경제적 측면에서 시장개혁을 확실히 합니다. 다만 어디까지냐에 대해 논쟁이 있고 지나치게 민영화해 실패한 부분까지 따라할 의사는 없지만 FTA 같은 것은 기구를 따로 만들어 실속 있게 할 지 점검해 가고 있습니다.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무법자가 행세하고 다니지 않는 사회라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실력 사회, 선진국 됩니다. 지금껏 한국사회 제1 무법자는 대통령 아닙니까.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 무법자의 수하들로 몇 몇 권력기관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른바 빅4가 법 위에 군림하고 부당히 억압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 문화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바뀌지 않으면 소득 2만 달러까지는 갈 수 있어도 3만불은 못갈 것이라 봅니다.

대통령이 왜 힘이 없냐 하는데, 저는 대통령은 힘을 좀 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히 할 것은 무법자들의 힘을 좀 빼고, 정정당당히 경쟁하지 않고 반칙하고 야바위하고 하는 일을 뿌리 뽑는 것은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소리 없이 모두가 법으로부터 보호받고 함께 만든 규범을 존중하고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그렇게 사는 사회 문화를 만드는 데에 집중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